

화장교육이 노인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정시¹, 민경진^{2*}

¹대구산업정보대학 뷰티스타일리스트과, ²계명대학교 대학원 공중보건학과

The Effect of Make-up Education on Elderly Women's Life Satisfaction

Jung-Si Kim¹ and Kyung-Jin Min^{2*}

¹Dept. of Beauty Stylist, Daegu Polytechnic College

²Dept. of Public Health, Keimyung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D시 소재 P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2010년 5월 28일부터 7월 16일 까지 8주간의 화장교육을 실시하여 화장교육이 노인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전체 80명 중 연령과 화장관심도를 근거로 실험군 40명, 대조군 40명으로 나누고, 생활만족도를 사전 조사 후, 실험군에게 8주간 화장교육을 실시하고, 화장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생활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노인여성을 위한 8주간의 화장교육의 내용은 우아하고 자연스런 화장법, 10년 어려보이는 동안 화장법, 얼굴 수정 화장법,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화장법, 한복에 어울리는 화장법, 파티 화장법으로 구성하였고, 이론수업과 함께 매시간 직접 자기 얼굴에 화장하도록 실습하였다. 교육 후 노인여성들의 화장교육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구결과, 화장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생활만족도는 유의하게 향상되어 ($p<0.05$), 화장교육이 노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 of make-up educa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omen based on a make-up education session for eight weeks from May 28 to July 16, 2010 provided to elderly women aged 60 or above who visited P Seniors' Welfare Center in D city. 80 samples were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of 40 people and the control group of 40 people based on age and interest in make-up. Their life satisfaction level was identified before the survey.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an eight-week make-up education session. In order to verify effects of the make-up education, follow-up tests were conducted toward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both to compare life satisfaction levels. The make-up education was divided into elegant and natural make-up, make-up to look ten years younger, face-changing make-up, seasonal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make-up, make-up for Korean traditional costumes, and party make-up. In each class, students practiced make-up on their face while taking a lecture on theories. After the education, the students found the education satisfactory overall. Based on the results,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the make-up educ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p<0.05$), confirming that make-up education affects the life at old age.

Key Words : Elderly women, Make-up education, Life satisfaction

1. 서론

현대 사회의 인구 고령화는 노인 복지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1]. 그로인해 노인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학계의 연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2]. 노인여성은 고령화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3] 경제활동율도 높아지고[4], 외모에 대한 관심과 미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3]. 그러나, 노인

*교신저자 : 민경진(kim999@kmu.ac.kr)

접수일 11년 02월 23일

수정일 11년 03월 21일

게재확정일 11년 04월 07일

여성은 노인이라는 자각이 남성보다 빠르고[5] 외모에 대한 만족도 낮아[6] 노화로 인한 외모의 변화는 대인관계 및 생활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화는 피부의 생기와 탄력, 색을 변화시키고 얼굴 윤곽도 변화시킨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때때로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7]고 하였다. 화장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연구되고 있으며[8], 여성 스스로가 자기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9]고 하였다. 정광하[10]의 연구에서 20대 여성들이 외적 이미지 관리를 위해 가장 높은 비율로 활용하는 방법은 ‘화장’이라 하였고, 효과적인 화장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제로 화장 강습을 받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최은정[11]은 성인여성들이 화장을 통하여 자신의 외모가 향상되는 경험을 가지며, 그것이 자신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실제로 화장만족도는 낮은 편이라 하였고, 화장법에 대해 교육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여성도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3] 화장만족이나 외모만족이 낮아[12], 화장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높고[13], 조선영[14]의 연구에서 70세 이상의 여성이 55세-69세의 여성보다 화장교육에 더 높은 참여의사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좋은 외모를 갖는 것은 꾸준한 자기관리를 필요로 하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남성 할 것 없이 외모에 대한 고민이 문제로 대두되고, 성형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외모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11]. 미의 추구에 대한 욕구는 나이가 들어남과 상관없이 항상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더 젊음을 갈망하고 외모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자칫 노화된 외모로 인한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노인여성의 얼굴특성에 맞는 화장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매력적인 외모는 삶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만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15], 노년기의 외모관리는 자긍심과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16].

이 연구에서 화장교육은 노인여성들이 화장행위의 실천을 통해 스스로가 자기 외모를 관리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노후 생활을 즐겁고 보람되게 보내도록 만족감을 높이고자 하며, 노인을 위한 교육은 노인의 생활만족도 즉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삶의 만족[17]에 영향을 미치며[18-20],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고 있다[21].

기존의 관련 선행논문을 보면 다양한 미용요법을 적용한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화장을 적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부족한 편이다. 이에 이 연구는 노인여성에게 화장교육을 실

시하여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화장교육이 노인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2.1.1 사전 설문조사

2010년 5월 17일에 예비설문을 실시하여 중복문항이나 이해도가 낮은 설문문항은 수정하였고, 본 조사는 2010년 5월 28일 D시 소재 P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여성들 중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화장교육 참가에 동의한 80명 중 연령과 화장 관심도를 근거로 해서 실험군 40명과 대조군 40명으로 나누고, 각각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일반적 특성과 화장특성, 생활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설문기입방법은 자기 기입식으로 하였고, 시력이 낮거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직접 설문문항을 읽어주며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5개 문항, 화장특성 6개 문항, 생활만족도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1.2 화장교육 실시

화장교육은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실험군 40명을 대상으로 2010년 5월 28일부터 2010년 7월 16일 까지 8주간 교육을 하였다. 주 1회 60분간 강의하되, 이론 15분, 실기 45분을 원칙으로 하였고, 교육의 시작 전과 후에는 진행을 위한 준비 및 진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다음 강의에 반영하였다.

2.1.3 사후 설문조사

8주간의 화장교육을 종료한 후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장교육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각각 생활만족도를 재조사하였다. 실험군은 교육의 만족도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만족도에 관한 설문지는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화장교육 과정 중 실험군의 교육 참여율이 6회 미만이 6명과 대조군의 중도 탈락한 4명을 제외한 총 70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생활만족도 측정 도구

우리나라 노인 복지 연구를 목적으로 최성재가 개발한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22]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과거 영역 6개 문항, 현재 영역 8개 문항, 미래 영역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2.2 화장교육의 구성

이 연구에 사용된 화장교육의 구성은 김보경의 자가 미용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23]와 김영란의 미용심리치료를 위한 자가 미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24]를 참고하였고, 노인여성의 화장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여 8주간 8회 화장교육과정을 개발 및 구성하였다.

내용은 제 1주 우아하고 자연스런 화장법, 제 2주 10년 어려보이는 동안 화장법, 제 3주 얼굴 수정 화장법, 제 4-6주는 사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화장법, 제 7주 한복에 어울리는(잔치, 결혼식) 화장법, 제 8주 파티 화장법 교육 및 실습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시간은 1회 60분으로 강의 순서는 이론, 실습, 정리의 단계로 일관성 있게 진행하였다.

2.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활만족도를 사전 조사하고, 실험군에게 8주간 화장교육 실시 후에 화장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WIN 17.0으로 분석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화장특성은 교차 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동질성 검증은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화장교육에 참여한 실험군과 비 참여한 대조군의 생활만족도의 교육 전후 차이 검증은 paired 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집단에 따른 교육 전후의 실험효과 차이 검증은 교육 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실험군을 대상으로 화장교육 후의 만족도는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만족도 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를 Cronbach' α 계수로 표시하였다. 생활만족도의 척도는 0.807로 신뢰성이 검증되었다[표 1].

[표 1] 연구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변수	내용	문항수	척도	Cronbach' α
생활만족도	전체	20	5	0.807
	과거	6	5	0.636
	현재	8	5	0.811
	미래	6	5	0.631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특성

3.1.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는 대조군은 36명, 실험군은 34명으로 총 7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5~69세’가 많았고, 가족형태는 ‘배우자와 동거’가 많았다. 생활형편은 ‘보통이다’가 실험군 88.2%, 대조군 86.1%로 많았고, 외출빈도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가 대체로 높았고,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가 대체로 많았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전체	실험군	대조군	χ ²
연령	60세~64세	8(11.4)	3(8.8)	5(13.9)	1.987
	65세~69세	35(50.0)	19(55.9)	16(44.4)	
	70세~74세	20(28.6)	10(29.4)	10(27.8)	
	75세~79세	7(10.0)	2(5.9)	5(13.9)	
	80세 이상	8(11.4)	4(11.8)	4(11.1)	
가족 형태	배우자와 동거	39(55.7)	21(61.8)	18(50.0)	5.349
	자녀	9(12.9)	3(8.8)	6(16.7)	
	혼자	15(21.4)	9(26.5)	6(16.7)	
	배우자, 자녀	7(10.0)	1(2.9)	6(16.7)	
생활 형편	못 사는 편	6(8.6)	2(5.9)	4(11.1)	0.960
	보통인 편	61(87.1)	30(88.2)	31(86.1)	
	잘 사는 편	3(4.3)	2(5.9)	1(2.8)	
외출 빈도	일주일에 1-2회	8(11.4)	2(5.9)	6(16.7)	3.042
	일주일에 3-4회	31(44.3)	18(52.9)	13(36.1)	
	거의 매일 외출	31(44.3)	14(41.2)	17(47.2)	
건강 상태	건강 못한 편	13(18.6)	4(11.8)	9(25.0)	2.038
	보통인 편	30(42.9)	16(47.1)	14(38.9)	
	건강한 편	27(38.6)	14(41.2)	13(36.1)	
계		70(100.0)	34(100.0)	36(100.0)	

3.1.2 연구 대상자의 화장특성

표 3의 화장특성에서 실험군, 대조군 모두 화장교육 경험은 ‘없다’가, 화장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은 ‘중요하다’가 많았다. 대체로 노인여성들의 화장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색조화장은 거의 모든 대상자가 간단하게나마 색조화장을 하고 있었고, 색조화장 빈도는 ‘외출 시 반드시 한다’가 실험군 50.0%, 대조군 52.9%로 많았고, 색조화장품 만족도와 화장 실력의 정도는 ‘보통이다’가 많았다. 화장특성은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연구 대상자의 화장 특성

항 목	구 분	전체	실험군	대조군	χ^2
화장 교육 경험	없다	61(87.1)	29(87.9)	32(88.9)	0.017
	있다	8(11.4)	4(12.1)	4(11.1)	
화장 중요성	중요하지 않다	1(1.4)	1(2.9)	0(0.0)	1.361
	보통이다	10(7.0)	4(11.8)	6(16.7)	
	중요하다	59(84.3)	29(85.3)	30(83.3)	
색조 화장	한다	67(95.7)	33(97.1)	34(94.4)	0.291
	안한다	3(4.3)	1(2.9)	2(5.6)	
색조 화장 빈도	평상시에 늘 한다	12(17.9)	5(15.2)	7(20.6)	0.305
	외출시 반드시 한다	35(52.2)	17(50.0)	18(52.9)	
	외출시 가끔 한다	20(28.6)	11(32.4)	9(26.5)	
색조 화장품 만족	불만족	2(3.0)	1(3.0)	1(3.0)	0.052
	보통	50(74.6)	25(75.8)	25(73.5)	
	만족	15(22.4)	7(21.2)	8(23.5)	
화장 실력	잘 못하는 편	23(34.3)	11(33.3)	12(35.3)	2.124
	보통인 편	42(62.7)	22(66.7)	20(58.8)	
	잘하는 편	2(3.0)	-	2(5.9)	
계		70(100.0)	34(100.0)	36(100.0)	

3.1.3 생활만족도의 동질성 검증

표 4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증한 것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활만족도는 동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 생활만족도의 동질성 검증

영역	실험군	대조군	t
전 체	3.36±0.37	3.28±0.39	0.887
과거영역	3.06±0.51	3.09±0.47	-0.247
현재영역	3.58±0.55	3.48±0.54	0.783
미래영역	3.37±0.50	3.21±0.48	1.432

3.2.4 생활만족도의 교육효과 검증

표 5는 생활만족도의 교육효과 검증 분석 결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육 전후의 차이는 paired sample t-test를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는 교육 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ANCOVA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교육 전 점수 3.4에서 3.5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1), 대조군은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 생활만족도 중 현재 영역에서 실험군이 3.6에서 3.8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1) 과거, 미래 영역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 집단 간 비교에서 실험군은 교육 후 유의한 증가가 있었고(p<0.05) 특히, 현재 영역의 생활만족도가 향상되었다. 화장교육은 노인여성의 생활만족도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5] 집단 간 생활만족도의 교육 전후 비교

영역	집단	교육 전	교육 후	t	F
전체	실험군	3.36±0.37	3.52±0.40	2.773**	3.943*
	대조군	3.28±0.39	3.32±0.38	0.833	
과거	실험군	3.06±0.51	3.14±0.56	1.034	1.165
	대조군	3.09±0.47	3.07±0.42	-0.446	
현재	실험군	3.58±0.55	3.82±0.45	2.844**	4.393*
	대조군	3.48±0.54	3.56±0.52	1.087	
미래	실험군	3.37±0.45	3.50±0.49	1.732	2.261
	대조군	3.21±0.48	3.26±0.48	0.635	

* : p<0.05, ** : p<0.01

3.2.5 화장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

화장교육 실시 후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도움정도, 재교육 참여 의사, 교육의 권유도, 실천 여부 등에 관한 만족도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6. 평가 결과는 백분율로 환산하였고, 교육 참여자의 화장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았다.

[표 6] 화장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

항 목	구 분	명	%
화장교육 도움	도움이 되었다	34	100.0
	보통이다	-	-
화장교육 참여의사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참여하고 싶다	34	100.0
화장교육 권유	참여하고 싶지 않다	-	-
	권한다	34	100.0
교육 후 실천	권하지 않는다	-	-
	실천한다	34	100.0
화장교육 재미	실천하지 않는다	-	-
	재미있었다	33	97.1
	보통이다	1	2.9
화장교육 만족	재미없었다	-	-
	만족한다	31	91.2
	보통이다	3	8.8
계	불만족이다	-	-
		34	100.0

4. 고찰

노인들은 젊음에서 멀어지면서부터 자신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낮추거나 재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노인 여성이라 해서 젊거나 중년의 여성보다 자기 신체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고[25] 오히려 외모손질에 더 몰두한다고[26] 하였다. 외모는 화장품이나 옷을 통해 더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27].

이 연구는 노인여성들이 노화로 인해 변화된 얼굴의 특성에 맞는 화장법을 배워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데 필요한 외모관리 및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도되었고, 앞으로 노인여성 복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여성으로 대체로 복지관 이용률이 높아 외출빈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거의가 간단한 색조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노인여성들이 외모관리에 관심이 높고 대체로 색조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선영[14]의 연구와 일치한다. 외출은 노인여성들에게 있어 사회적 활동이자 자신의 외모에 대한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게 되므로 이화순[12]의 연구와 같이 외출 시에는 색조화장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외출은 색조화장의 빈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노인여성들의 외출빈도 및 색조화장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적극적인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들의 효율적 외모관리를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8].

실험군의 화장교육의 효과 검증 결과, 교육 후 노인여성의 생활만족도는 교육 전보다 향상되었고, 생활만족도 중 현재 영역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김보경[23]의 미용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와 같이 노인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Graham과 Kligman[8]의 연구에서 매력적인 노인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다고 한 결과와, 화장 후 자신의 모습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이원진[29]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화장교육은 화장의 실천을 증진시켜 화장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화장교육을 통한 생활만족도의 향상은 새롭고 개선된 화장법을 통한 화장행위의 실천을 통해 화장으로 얻는 만족감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화장교육은 화장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꾸준한 화장행위의 실천으로 외모만족감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교육과정 중에 대상자들은 처진 눈매를 수정하는 화장법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시력의 저하로 눈 화장을 잘 하기 힘든 노인여성을 위한 간편한

눈 화장품이나 눈 화장법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하겠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연구 대상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노인여성에 적용하는 것과 우리나라 모든 노인여성을 대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노인여성들을 대상으로 8주간의 화장교육을 실시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화장교육의 효용성을 알아보고, 향후 노인 복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D 시에 소재한 P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여성으로 연구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교육 참여에 동의한 노인여성 80명 중 연령과 화장 관심도를 근거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고 중도 탈락자를 제외한 최종 대조군 36명과 실험군 34명 총 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실험군을 대상으로 2010년 5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8주 동안 화장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우아하고 자연스런 화장법, 10년 어려보이는 동안 화장법, 얼굴수정 화장법,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화장법, 한복에 어울리는 화장법, 파티 화장법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이 끝난 후 실험군의 교육 전후의 생활만족도의 비교, 대조군의 교육 전후의 생활만족도의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활만족도의 비교로 화장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 실험군은 생활만족도가 교육 전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고($p < 0.01$), 집단 간 비교에서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유의하게 향상되어($p < 0.05$) 화장교육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교육 후 실험군의 생활만족도 중 현재 영역이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화장교육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8주간의 화장교육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었고 노인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대인관계에서 자신감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노인복지 시설에서 화장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 조재숙, “노인복지레크리에이션”, 창지사, pp. 11-220, 2007.

[2] L. Baker, and E. Gringart, "Body image and self-esteem in older adulthood", *Ageing and Society*, Vol. 29, pp. 977-995, 2009.

[3] 진진수, "실버여성의 화장 태도 및 화장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령층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5] 전재일, "노인으로서 자기개념의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업대학 노인복지연구, 제1권, pp. 1-23, 1978.

[6] 김현희, 김용숙, "중년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얼굴만족도와 화장행동", 한국복식학회지, 제57권, 제5호, pp. 99-111, 2007.

[7] M. A. Gupta, and B. A. Gilchrest, "Psychosocial aspects of aging skin", *Dermatologic Clinics*, Vol. 23, pp. 643-648, 2005.

[8] J. A. Graham, and A. J. Jouhar, "The importance of cosmetics in the psychology of appearance", *International Society of Tropical Dermatology* 22, no. 3, pp. 153-156, 1983.

[9] T. F. Cash, K. Dawson, P. Davis, M. Bowen, and C. Galumbeck, "Effects of cosmetics use on th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image of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9, no. 3, pp. 349-355, 1989.

[10] 정광하, "메이크업이 이미지효과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1] 최은정, "메이크업이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2] 이화순, "노인의 화장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3권, 제1호, pp. 165-183, 1997.

[13] 서란숙, 이소연, "실버 여성 전용 화장품에 대한 요구도 조사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6권, 제 3호, pp. 607-630, 2000.

[14] 조선영, "실버세대 여성들의 화장에 대한 태도와 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5] J. A. Graham, and A. M. Kligman, "Physical attractiveness, cosmetic use and self-perception in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Vol. 7, pp. 85-97, 1985.

[16] 이경림, "노인의 외적 자기관리를 통한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7] B. L. Neugarten, R. J. Harvighust, and S. S. Tobin,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16, pp. 134-143, 1961.

[18] 김미영, "노인교육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

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9] 박기권, "노인교육을 통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0] 박영숙, "노인 교육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제 21권, pp. 99-121, 2003.

[21] M. L. Medley,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Vol. 31, No. 4, pp. 448-455, 1976.

[22] 최성재, "노인의 생활만족도측정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49권, pp. 233-258, 1986.

[23] 김보경, "자가 미용교육 프로그램이 여성 노인의 우울, 자아 존중감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4] 김영란, "미용심리치료를 위한 자가 미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25] S. C. Thompson, C. Thomas, C. A. Rickabaugh, P. Tantamjarik, T. Otsuki, D. Pan, B. F. Garcia, and E. Sinar,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over age-related changes in physical appearance", *Journal of Personality*, Vol. 66, pp. 583-605, 1998.

[26] H. O. Jackson, and G. S. O'Neal, "Dress and appearance responses to perceptions of aging",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2, pp. 8-15, 1994.

[27] R. Hillestad, "The underlying structure of appearance", *Dress*, Vol. 6, pp. 117-125, 1980.

[28] 최영애, "노인들의 우울, 자존감 및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제21권, pp. 27-47, 2003.

[29] 이원진, "노인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 정 시(Jung-Si Kim)

[정회원]



- 2006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뷰티코디네이트학과 (미술학석사)
- 2011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공중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대구산업정보대학 뷰티스타일리스트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미용, 패션, 건강

민 경 진(Kyung-Jin Min)

[정회원]



- 1982년 02월 : 영남대학교 약학과 (약학석사)
- 1985년 02월 : 영남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약학박사)
- 1998년 05월 : 제8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시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1986년 0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교수

<관심분야>
환경보건